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of Attachment,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among Kindergarten Children

홍 계 옥**

Hong, Kye, Ok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is study aimed (1) to classify Korean kindergarten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based on a system for classifying attachment organization developed by Main and Cassidy (1988), and (2)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and temperament and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76 kindergarteners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and videotaped in the strange situation. The modified PTQ(Parent and Teacher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 and the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 were administered respectively to 76 mothers to assess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tempera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centiles, Pearson's correlation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Main and Cassidy(1988) and that of Korean kindergarten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attachment to their mother.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attachment. Th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all together accounted for about 7.5% of the variation in attachment-variables.

* 본 논문은 1995년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상명여대·한남대 강사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자녀간 애착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 생후 6, 7개월 정도 지나면 양육자와 영아간의 애착관계가 발달하는데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가족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생후 3년 정도까지 동일한 애착관계를 지속한다고 본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는 여러 연구결과 밝혀진 바 있지만 영아기 이후의 애착은 Ainsworth의 낯선 상황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어서 지속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Main과 Cassidy의 중단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실증적 연구(Main & Cassidy, 1988)에서 애착이 지속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을 보면 초기 뿐 아니라 후기의 애착유형도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Main과 Cassidy(1988)는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이 든 유아기 애착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의 경우, 후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는 드문데 조금 더 나이 든 유아의 애착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유형 측정가능성과 애착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애착 연구자들은 애착유형 발달의 질적인 차이에 관심을 두었다. 양육자의 영향, 예를 들면 어머니의 민감성, 반응성과 같은 요인과 더불어 영·유아의 특성, 예를 들면 기질과 같은 요인이 애착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Ainsworth, 1973).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애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지지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조금씩 영역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 일치를 보고 있다(Anisfeld, Casper, Nozyce & Cunningham, 1990).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외·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영아나 어린 유아에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특성이 애착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 자녀의 특성은 기질로서 설명될 수 있다. Thomas와 Chess, 그리고 Birch(1968)가 제시한 기질에 대한 개념은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개념으로서 유기체가 갖는 특성이나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조화를 이룬다면 잘 발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행동이 조화를 이룬다면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Bowlby(1969/1982)도 영아의 특성이 모자간 애착의 질과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는데, 영아의 성차나 활동수준 및 흥분성이 모자간 애착의 질과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모자간 애착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아 특성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Goldsmith & Alansky, 1987; Sroufe, 1985). 국내에서는 유아의 특성을 애착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드물며 있더라도 주로 영아기나 어린 유아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 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금 더 나이 든 유아의 애착

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5·6세된 유아의 애착유형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유아 특질로서의 기질과 어머니 특질로서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둔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행동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기질은 모자녀간 애착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애착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넷째, 유아의 기질 변인군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은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모자녀간 애착행동

애착이란 인간이나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능동적,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정서적 유대라고 할 수 있다. 비교행동학 이론의 대표자인 Bowlby (1958)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개인들에 대한 행동과 달리 어머니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러한 상태가 손상될 때 근접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애착행동이라고 하였다. Bowlby와 Ainsworth에 의하면, 애착은 개체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요소이며, 애정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Ainsworth, 1973). 인간을 중심으로 애착관계를 다룬 Cohen(1974)도 애착이란 두 사람 간의 특수한 애정적 관계이며 상호 특별한 관심을 가지므로 애착 대상은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는 심리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1)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과 애착유형 분류

영아는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되는 긴장상태에 빠지면 애착행동을 강하게 나타낸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리적 기능이 작용하여 애착대상(주로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낸다(울거나 접근추구를 통하여). 애착대상에 대한 이러한 애착행동은 개인의 내적 상태와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애착에 대한 개인차로 설명할 수 있다.

Ainsworth(1963)는 임상적 관찰을 토대로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차원의 행동보다는 5가지 차원의 상호작용 유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낯선 상황을 이용한 연구(Ainsworth & Wittig, 1969)에서 영아의 애착은 격리반응의 빈도나 지속시간 등의 단일 지표가 아니라 중다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상호작용 유목들에는 접근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접근이나 상호작용회피, 접촉저항, 그리고 원거리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었다.

낯선 상황의 각 에피소드에서 각 해당유목에 관련된 행동의 주도성, 행동시작의 즉각성,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영아들의 애착의 질을 안정대 불안정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이 구분은 주로 영아가 재결합시에 보이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Main, 1973). 이 구분을 토대로 영아의 애착상태를 안정 애착집단, 불안정 회피집단, 불안정 저항집단으로 나누었다.

2) Main과 Cassidy의 애착유형 분류

애착형성의 개인차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으로 영아에 초점을 두어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는 지금까지 조금 더 나이가 든 아동에 대한 애착유형 분류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Main과 Kaplan, 그리고 Cassidy(1985)는 지금까지 구조화된 낯선상황에서의 영아의 비언어적 애착측정을 벗어나 애착행동을 일찍이 Bowlby(1969/1982)가 언급한 내적 실행모델과 관련시킨다면 영아뿐 아니라 보다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의 애착측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애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감정이나 행동뿐 아니라 주의, 기억, 그리고 인지를 조정하는 내적 실행모델과 결부시킨다면 안정애착과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애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 실행모델의 개인차는 비언어적 행동뿐 아니라 언어적 행동이나 정신구조와 관련있다고 생각되며 애착측정은 비언어적 행동과 더불어 표상이나 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in 등(1985; 1988)은 6세아의 애착구조를 인지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분류방법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Ainsworth의 낯선상황 실험을 고려하여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실험상황을 개발하였다. 그들이 분류한 애착 체계는 1시간의 실험실 격리에 따른 재결합시 처음 3-5분간의 아동의 반응을 근거로 분석한 것에 따른다.

Main과 Weston(1981)은 Ainsworth의 세가지 애착유형에 속하지 않는 영아들을 불안 비분류형(insecure-unclassifiable)으로 분류했고 이는 다시 Main과 Solomon(1986)에 의하여 비정형화된 유형(disorganized/disoriented)으로 명

명되었다. Main과 Cassidy(1988)는 그들의 애착체계에서 이들 영아들을 불안 조정형(insecure-controlling)과 불안 비분류형(insecure-unclassified)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그들이 분류한 6세아의 5개의 주요 애착유형은 안정형 애착, 불안 회피형 애착, 불안 모순형 애착, 불안 조정형 애착, 그리고 불안 비분류형 애착이다. 이는 다시 10개 하위유형으로 나뉘어졌다.

2. 유아의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를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특성과 행동에 따라 아동발달이 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아동이 양육자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한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Levine(1973)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점을 비판하면서 아동의 타고난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며, 그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Rutter(1979)는 기질을 생래적 특성으로 보고 모자녀간 애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기질적 차이는 적어도 부적절한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거나 정신 병리적 발달과 상관성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기질에 대해 Thomas 등(Thomas, Chess & Birch, 1968)이 처음 관심을 보였으며 영아의 특성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유기체가 환경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면 유기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잘 발달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부조화를 이루면 발달이 왜곡되고 문제행동이 유발된다는 조화의 적합성 개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행동과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면 보다 나은 발달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애착의 발달 측면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주로 연구가 됨을 지양하고 유아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기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oldsmith와 Alansky(1987)는 기질은 어머니의 민감성만큼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Fagot & Kavanagh, 1993; Lewis & Feiring, 1989; Vaughn et al., 1992). 그러나 영아의 기질이 애착의 안정성-불안정성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는 데 실패한 연구들도 있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Egeland & Farber, 1984). Sroufe(1985)는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아의 기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기질이 단순히 모자녀간 애착에 영향을 미쳐서인지 아니면 기질이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이미 고려되어 애착에 대한 영향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애착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유아에 대한 연구는 소홀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들의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Bowlby(1969/1982)는 개인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내적 실행모델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애착의 질에 대한 영아-애착대상자 간의 관계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의 개념은 이후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애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린 영아와 양육자의 관계와 관련해서 행하여져 왔기에 조금 더 나은 아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6세아 애착유형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상관 조사(Solomon, George, & Ivans, 1987)에서는 어머니의 지지적 수용태도 그리고 배움과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는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지나친 관여, 응석 받아주기, 독립성에 대한 방해는 불안-모순(갈등)형과, 어머니의 거부, 증오, 의존성에 대한 방해는 불안-회피형과, 그리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역할행동은 불안-조정형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외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Maslin & Bates, 1983).

국내에서는 유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드문데, 영아나 어린 유아에 대한 연구도 주로 애착과 양육의 애정적 측면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일치하는 연구결과들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2개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곳에 소재한 유치원 4곳의 남녀 유아

100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선정하였다. 대상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였다. 가능한 한 환경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은 부모와 생활하며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가정의 유아로 한정하였다. 관찰 결과 연령이 5세 미만이거나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을 제외하고 남아 43명, 여아 33명(총 76명의 유아)에 대한 관찰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모자녀간 애착행동

본 연구에서는 5-6세 유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Main과 Cassidy(1988)의 실험절차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찰 척도로는 연구자가 예비연구(1993)를 통하여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안정 점수체계, 회피 점수체계, 회피 점수를 제외한 불안정 점수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Main과 Cassidy가 분류한 5개의 애착유형에서 불안 비분류형을 뺀 4개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내용 구성은 Main과 Cassidy의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5세 유아에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들을 포함한 것으로서 안정체계, 불안-회피체계, 불안-모순체계, 불안-조정체계의 각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행동들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위하여 아동학 전공자 9인과 국문학 전공자의 도움을 받았다.

2) 유아의 기질 척도 제작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Thomas와 Chess(1977)가 제작한 유아 기질척도(PTQ: Parent and teacher temperament question-

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애착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일면들을 잘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Crase와 그의 동료들(1978)의 아이오아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번역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척도제작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두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전공자 9인과 국문학 전공자로부터 구하였다. PTQ의 72문항과 IPBI의 문항 중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1문항을 뺀 나머지 35문항을 우리 문화에 적절하게 번역하여 만든 질문지를 1993년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서울 시내 2개 유치원 어머니 300명에게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28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각 문항이 제외될 경우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모두 40개였으며, 부적합한 문항을 뺀 후의 cronbach α 는 .74이었다. 문항 분석을 통해 선정된 40개 문항의 상호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 분석방법 및 직교회전방법 중 varimax를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뺀 나머지 35개 문항을 주요인 분석방법과 사각회전방법 중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promax를 통하여 4개에서 9개까지 요인수를 지정한 후 다시 각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구성으로 간주되어 이를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 중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것을 뺀 나머지 29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

였다. 즉 요인 I은 '접근-회피성', 요인 II는 '규칙성', 요인 III은 '활동성', 요인 IV는 '지구력', 그리고 요인 V는 '적응성'이다. 기질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7점 척도이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작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유아 기질 척도 문항의 분석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6개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conbach α 는 .84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모두 26개 문항을 포함한 4개의 요인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구성으로 간주되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즉 요인 I은 '합리적 지도', 요인 II는 '한계설정', 요인 III은 '애정', 그리고 요인 IV는 '반응성'이다. 양육행동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척도이다.

3. 연구절차

1) 본 실험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애착행동의 측정 및 분류를 위한 예비관찰을 실시하여 애착행동 분류체계의 하위척도를 1차 검증한 결과(1993),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한 관찰실험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1994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낯선상황 실험절차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절차를 소개하는 제1 실험상황 5분,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상황에 익숙해지는 제2 실험상황 10분, 유아가 어머니와 격리를 하는 제3 실험상황 30분, 유아가 어머니와 재결합하는 제4 실험상황 5분을 포함한다. 마지막 5분동안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행동이 연구의 초점이다. 모든

실험상황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제3 실험상황에서 어머니가 작성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2) 관찰자료의 점수화 과정

A. 애착유형의 분류

두 분석자(연구자 포함)가 격리 후 재결합 5분동안 유아가 나타내는 애착행동(실험상황 4에서)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5초 단위로 분석하여 행동목록표를 작성하고 이 분석을 근거로 하여 4개 하위행동유형을 중심으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체계를 만들어진 검사지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검사지를 근거로 4유형의 애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4애착유형 점수체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의 점수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되 불안-모순형이나 불안-조정형은 다른 애착유형 점수체계에서 다소 높더라도 3점 이상일 경우는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 관찰의 신뢰도

신뢰도는 두 분석자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근거로 작성한 검사지의 일치도를 산정하였다. 이때 다른 분석자는 사전 훈련을 한 석사학위 이상의 아동학 전공자로서 본 연구의 유아 40명을 선정하여 관찰, 기록을 하게 하였다. 관찰기록지의 행동차원 중 해당하는 항목 각각에 대하여 대상 아동을 평정, 기록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전체적으로는 .78로, 안정 애착 척도는 .83, 불안애착 척도는 .78로 안정애착 척도에서 조금 더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84로 다소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상관 분석,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수준은 .05로 하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고려대학교 전산소에서의 SPSS/PC+ 프로그램, SAS/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우리나라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행동유형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행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로 분류된 피험자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유형별 남녀간 백분율(%)

애착유형	남		여		전체	
	N	%	N	%	N	%
안정애착형(B)	23	53.5	24	72.7	47	61.8
불안-회피형(A)	14	32.6	5	15.2	19	25
불안-모순형(C)	1	2.3	3	9.1	4	3.3
불안-조정형(D)	5	11.6	1	3.0	6	7.9
전체	43(명)	100(%)	33(명)	(%)	76(명)	100(%)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정애착형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불안애착형이 38.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불안애착형의 하위 유형별로는 불안-회피형이 25%, 불안-조정형이 7.9%, 불안-모순형이 3.3%의 순이었다. 6세아를 대상으로 한 Main과 Cassidy(1988)와 Cohn(199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형, 불안-조정형, 불안-회피형 순이었다.

또한 애착 유형 분류를 비율면에서 비교해 보면, Main과 Cassidy(1988)연구에서 밝혀진 비율과 Cohn(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비율과 차이가 있었다. 즉 Main과 Cassidy가 두 번 실시하여 동일하게 나타난 피험자의 비율을 보면 B집단이 41.9%, D집단이 22.6%, C집단이 19.4%, A집단이 16.1%의 순이었고 Cohn의 연구에서는 B집단이 55%, D집단이 15%, A집단이 14%, C집단이 6%의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유아의 애착행동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애착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불안 조정형과 불안모순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Ijzendoorn과 Kroonenberg(1988)는 애착유형의 분포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정애착형이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영아기에 불안애착형이었던 유아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들의 양육능력의 발달에 따라 안정애착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Egeland와 Farber(1984)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애착형이 많음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불안-조정적, 불안-모순적 행동이 적게 나타난 것은 거부적인 태도나 미숙한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전의 연구(홍계옥, 1993) 결과와의 비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데, 즉 안정애착형(40.6%), 불안-회피형(31.3%), 불안-통제형(15.6%), 그리고 불안-모순형(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의 다소에 따른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 대상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유아의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행동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적 성향이 모자녀간 애착행동과 어

면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유아의 기질과 애착행동과의 상관관계 (N=76)

애착행동변인	접근-회피성	규칙성	활동성	지구력	적응성
안정성애착	.08	.08	-.33**	-.01	.31**
불안회피성	.09	-.07	.22*	.02	-.20
불안모순성	-.16	-.03	.14	-.27*	.08
불안조정성	-.05	-.02	.20	-.08	-.31**

*p<.05 **p<.01 ***p<.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하위 변인간의 상관분석에서는 변인에 따라서 상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유아의 활동성, 적응성 및 지구력과 애착행동 변인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활동성은 안정형애착과 부적상관, 불안-회피형 애착과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응성은 안정형애착과 정적 상관, 불안-조정성 애착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지구력은 불안-모순성과 부적상관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적일수록 어머니가 까다롭게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불안애착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한 선행연구(홍계옥, 1993; Vaughn et al., 1992)와 어느 정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기질과 애착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간에 일치함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기질과 같은 영아 자신의 행동이 애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 연구들(Fagot & Kavanagh, 1993; Goldsmith & Alansky, 1987; Lewis & Feiring, 1989; Vaughn et al., 1992)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보

여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Vaughn 등(1992)은 더 나이든 유아에서 기질과 애착행동은 더 상관이 있으며 기질의 영역과 애착의 유형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규칙성이나 접근-회피성은 애착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아의 기질이 직접적으로 애착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복합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행동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행동과의 상관관계(N=76)

애착행동변인	양 육 행 동			
	합리적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안정성애착	-.01	-.02	-.04	-.05
불안회피성	.01	-.27*	-.05	.05
불안모순성	-.08	.07	-.10	-.05
불안조정성	.03	.02	.04	.00

*p<.05 p<.01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애착행동의 하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지 양육행동 하위 변인 중 한계설정은 불안-회피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한계를 분명히 정해 줄수록 불안-회피적 애착행동을 적게 보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어머니의 제한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된(이경희, 1993) 결과인지는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어머니가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수록 불안-회피적이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면 이는 불안정 회피 및 불안정 저항아로 분류된 남아들은 다른 애착 집단아 보다 부모로부터 가장 적은 훈육이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Fagot와 Kavanagh (1993)의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반응성이 애착의 안정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홍계옥(199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유아의 기질 변인군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의 관계

위에 전개한 결과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기질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 변수군(predictor set)으로 하고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행동을 평가 변수군(criterion set)으로 하여 정준상관 관계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유아의 기질 변인군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의 관계

〈표 4〉 예측 변수군(기질)의 정준함수에 의한 평가 변수군(애착행동)에 대한 분산 설명률

	제1정준함수	제2정준함수	누적비율
안정성 애착	0.089	0.081	0.170
불안-회피성	0.039	0.012	0.051
불안-모순성	0.000	0.000	0.000
불안-조정성	0.079	0.035	0.114
애착행동변인	0.032	0.020	0.052

〈표 4〉은 정준중복분석에 의하여 예측 변수군(기질)이 평가 변수군(애착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기질 변인군이 모자간 애착행동 변인군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만한 연구가가 드문 점에 비추어 해석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연구 대상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다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유아의 기질은 모자녀간 애착행동에 다소나마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의 관계

정준중복분석에 의하여 독립 변수군(양육행동)이 종속 변수군(애착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예측 변수군(양육행동)의 정준함수에 의한 평가 변수군(애착행동)에 대한 분산 설명률

	제1정준함수	제2정준함수	누적비율
안정성 애착	0.002	0.000	0.002
불안-회피성	0.071	0.068	0.139
불안-모순성	0.006	0.003	0.009
불안-조정성	0.014	0.000	0.014
애착행동변인	0.023	0.010	0.033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모자녀간 애착행동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3.3%로 나타나서 기질군보다 조금 더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다소나마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유아의 기

질이 애착행동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역할이 기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Sroufe(1985)의 주장과 상치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그리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은 점과 정준상관분석에서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은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영향력이 아이의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경희, 1993). 즉 자녀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늘어감에 어머니의 역할감소와 더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많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이경희, 1993; 최경순, 1992; Parke & Tinsley, 1987)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인간발달의 각 주기마다 적합한 연구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유아의 기질 변인군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의 관계

예측 변수군(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평가 변수군(모자녀간 애착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분석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고 있다.

<표 6> 예측 변수군(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정준합수에 의한 평가 변수(애착행동)에 대한 분산설명률

	제1정준합수	제2정준합수	누적비율
안정성 애착	0.069	0.014	0.083
불안-회피성	0.127	0.118	0.245
불안-모순성	0.006	0.001	0.007
불안-조정성	0.099	0.005	0.104
애착행동변인	0.041	0.034	0.075

두 변수군간의 관계의 강도를 살펴 보면 유아의 기질 변인군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군은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을 약 7.5% 정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기질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이 각각 애착행동을 설명하는 것의 합산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론이나 해석을 본 연구자의 식견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굳이 해석을 덧붙여 본다면 유아의 기질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은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통해 혼합되어 일부는 서로 상쇄되면서 새로운 수치로 산출된 것으로 기질군 및 양육행동군의 각각의 측정의 합산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유아의 애착유형은 안정 애착형이 61.8%, 불안-회피형이 25%, 불안-조정형이 7.9%, 불안-모순형이 3.3%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사이에서는 변인에 따라 상관의 정도가 달랐다. 즉 유아의 활동성은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회피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적응성은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불안-조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지구력은 불안-모순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사이에서는 변인에 따라 상관이 달랐는데, 그 중 어머니의 한계설정 변인이 애착안정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

군과 모자녀간 애착행동 변인군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군은 애착행동을 5.2%,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은 애착행동군을 3.3%, 유아의 기질군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군은 모자녀간 애착행동군을 7.5%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유아의 애착행동에 대한 연구가 드문데 대해 실시된 것과 애착행동과 관련해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상관성을 밝힌 점이며, 앞으로도 단일 구인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복합구인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오늘날의 연구 추세에 비추어(윤진, 1991) 보다 다각적인 연구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유아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류층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유치원을 임의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편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아 연구 결과와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문제 제시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윤진(1991). 인간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0(1), 43-60.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1993).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 분류와 애착에 대한 유아기질의 영향. *아동학회지*, 14(2), 5-16.
- 홍계옥(1994).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지적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4), 181-191.
- Ainsworth, M. D. 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among the Ganda. In B. M.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2,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Ainsworth, M. D.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Caldwell & H. Ric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Vol. 4, 113-136), London: Methuen.
- Anisfeld, F., Casper, V., Nozyce, M., & Cunningham, N. (1990). Does infant carrying promote attachment?: An ex-

- 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increased physical contact o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 1617-162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In M. C.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o. 5*,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3: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New York: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9).
- Cohen, L. (1974).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human attachment. *Psychology Bulletin, 81*, 207-217.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ruse, S. P.,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Fogot, B. I. & Kavanagh, K. (1993). Parenting during the second year: Effects of children's age, sex,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4*, 258-271.
- Goldsmith, H. H., & Ala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Levine, R. A. (1973).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Lewis, M., & Feiring, C. (1989). Infant, mother,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 and subsequ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0*, 831-837.
- Main, M. (1973). *Play, exploration and competence as related to child-adult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

- tachment classification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n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T. B. Brazelton & M. Yogman(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NJ:Ablex.
-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aslin, C. A., & Bates, J. E. (1983). Precursors of anxious and secure attachments:A multivariate model at age 6 month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579-641.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New findings, new concepts, and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olomon, J., George, C., & Ivans, B. (1987).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home and security of attachment at age 6.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the Child Development, Baltimore, MD.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Vaughn, B. E., Hinde, J. S.,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463-473.